

석유기업, 대체에너지 개발 경쟁

BP · Shell에 ExxonMobil 가세 ... 바이오연료 개발열풍 재현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이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개발투자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은 영국의 BP와 Royal Dutch Shell을 비롯한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이 바이오연료 투자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고 10월19일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바이오연료 개발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ExxonMobil 역시 7월에 해조류 베이스 바이오연료 개발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석유 메이저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바꾸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본력이 풍부한 주요 메이저들이 대체에너지 투자에 나서면서 경기침체로 한풀 꺾였던 바이오연료 개발 열풍도 다시금 불붙을 조짐이다.

또한 석유 메이저들은 연료 생산과 공급·판매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탓에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BP는 브라질에서 10억달러 규모의 에탄올(Ethanol) 증설 투자에 나선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교에 에너지바이오사이언스센터 건립을 지원했다.

DuPont과 합작으로 영국 소재 에탄올 공장 부근에 바이오부탄올(Bio-Butanol) 시험생산 공장을 건설했으며, 셀룰로오스(Cellulose) 에탄올을 생산하는 베레넵과 합작기업도 건설할 예정이다.

Shell은 캐나다의 로젠과 공동으로 밀짚을 활용한 연료 생산 연구에 착수했으며 독일의 코렌과 목재 부산물을 이용한 연료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바이오연료 제조기업 코텍시스에 투자하고 있으며 바이오가솔린 개발에 나선 비렌트 에너지 시스템즈와도 협력관계를 맺었다.

바이오연료 제조기업 매스코마 코프의 브루스 제머슨 회장은 “바이오연료 산업에 강력하고 주요한 신호를 주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전통적 화석연료 생산하는 석유 메이저들의 외도는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나 미래의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2007년 50만배럴에 미치지 못했던 바이오연료 소비가 2030년까지 230만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메이저들의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투자비중은 전체 투자비중을 감안할 때 여전히 조심스러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

Shell은 2008년 총 자본투자가 320억달러인 반면, 과거 5년간 대체에너지와 탄소저감기술 투자는 17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BP 역시 2008년 대체에너지에 14억달러를 투자했으나 2009년 실제 투자액은 경기침체로 5억-10억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대체에너지 조사기관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앵거스 맥크론 선임연구원은 “바이오연료 분야가 흥미롭긴 하나 여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19>